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그 아픔은 어느 순간 내게 찾아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대신 차라리 자신이 아픔을 겪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품었던 아픔은 언젠가 미소가 되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재생의료 연구 선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전문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대표 유종만)와 ‘오가노이드 재생의료 상용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오가노이드 재생의료분야 공동연구, 임상 시험을 중심으로 한 재생의료분야의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를 위해 상호 협력, 우수 인력 교류 및 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상호의 기술과 정보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줄기세포·재생의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해당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두 전문 기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재생의료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권범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병원은 향후 미래유망 의료기술의 한 축인 재생의료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생태계를 마련하고, 실현가능성을 현실화 하여 재생의료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2학년도 3월 교원 및 직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지난 3월 8일과 1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4층 중강당에서 교원 및 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대학원 의학과 윤영순 교수 등 총 23명의 교원에 각각 승진임용(4명), 재임용(9명), 신규임용(10명)을 명했으며, 직원은 직급승진(2명), 보직임용(9명) 총 11명을 명했다.

채석래 의료원장은 “승진 및 신규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참여기업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방형실험실에서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2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을 지난 2019년에 이어 2022년 사업 주관기관으로 재선정되었다. 지금까지 총 59개의 창업기업 지원과 신규 고용 78명, 투자유치 190억원, 정부과제 88억 원 수주, 특허출원 총 36건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및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 사업 등 본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참여기업을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새롭게 선정하였다.

고양시 창업기업 7개를 포함한 20개 참여기업은 본원과 협약을 통해 시제품(시작품) 제작 및 임상 의사(전문가) 자문 등 본원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故강호진(해안심) 불자의 아름다운 회향, 발전기금 3천만 원 기부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동국대일산불교병원 발전기금을 희사하신 불자가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다.

주인공은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셨던 강호진(해안심) 불자이다. 故 강호진(해안심) 불자는 말기암으로 본원 완화의료센터에 입원 중에 헌신적으로 보살피 주신 의료진과 법사스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완화의료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보호자인 가족을 통해 3천만 원을 희사했다.

故 강호진(해안심) 불자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께서 동국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더욱 편안하게 위안 받는 곳이길 바란다는 발원과 함께 불자로서 무주상보시의 아름다운 회향을 실천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희사하신 정재는 완화의료센터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으며 故 강호진(해안심) 불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